



보도자료

제 공 일	2021. 6. 4.
제 공 기 관	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
담 당 자	김 현 주
연 락 처	070-4351-4482

사진 있음

사진 없음

코로나19 취약계층에 더 치명적인 상황, 팬데믹으로 인한 패닉상태 혼란 (기획보도 I)

-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팬데믹 현상, 부천시 청소년안전망과 함께 극복해요

-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잦아들 거라 생각했다. 그러나,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마스크는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잠을 자거나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늘 나와 함께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.
- “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”, “나만 힘드게 아냐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점차 무너져가는 취약계층의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.
- 단지, 날이 좋아 떠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답답하고, 모임에 나가서 신나게 떠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힘들지만, 이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.
-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질병 감염보다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.
-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감염은 예방할 수 있지만, 도무지 언제 나아질지

모르는 어려운 가정경제는 정신적인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동반하여 취약계층에 더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.

- 코로나 이전 상황부터 부천시는 해마다 사회적·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하며,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.
-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, ▲2018년 특별지원 14명, ▲2019년 특별지원 19명, ▲2020년 특별지원 28명, ▲2021년은 대폭 늘어난 42명이 선정되어 코로나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.
- 이처럼,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취약계층에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, 부천시는 청소년특별지원사업(생활, 자립, 상담, 활동, 기타 지원 등)으로 선정된 42명의 청소년을 부천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.
- 이번 특별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A군의 어머니는 가정형편이 나아질 정도의 넉넉한 지원 금액이 아닌데도, 생활지원으로 A군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것에 대한 고마움과, 어려운 시기에 관심을 주어 대상자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에 대해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표현하였다.
- 코로나시기에 마음방역을 위한 정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,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현실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부천시 청소년안전망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.
- 혹시, 주변에 청소년(만9세~만24세)이나 주 양육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,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(<https://www.bwyf.or.kr/mindclick/index.do>) 또는 전화 032-325-3002, 청소년전화 1388로 문의 가능하다.

사진1



▲부천시청 전경사진